

2022 여름호 협회장 인사말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계절은 변하지만
안전도선이라는 핵심 목표를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조 용 화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조용화입니다.

2022년이 어느덧 절반가량 흘러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사계절은 대한민국의 촉복이자 특색이면서도 한국인의 높은 환경 적응력과 더욱 강인한 DNA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 도선사 역시 찌는 듯한 더위와 숨 막히는 습도로 가득한 8월과 귓가를 찢을 듯한 매섭고 시린 찬바람이 나부끼는 1월의 바다, 이 극과 극을 오가는 환경에 적응해가며 전국 항만에서 도선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부디 올해도 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 깊어가는 가을과 겨울의 눈부심을 기꺼이 즐기며 도선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년 초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하고 이것이 자원과 식량을 둘러싼 세계경제와 해운물류계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지켜봤습니다.

‘전쟁’이라는 도저히 현대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상사태 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편, 얼마 전 6월, 저는 코로나19로 연기되어 4년 만에 열린 국제도선사협회(IMPA) 칸쿤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휴양과 낭만의 여행지 칸쿤에서는 전 세계 37여 개국 350여 명의 도선사가 오랜만에 모여 정답게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교류 속에는 지난 2~3년간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도선사와 불의의 도선사 승하선사고로 목숨을 잃은 도선사(도선수습생)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도선사의 역할의 가치를 드높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다짐한 시간이었으며, 울산항의 광상민 도선사가 IMPA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역대 4명의 부회장을 배출해 한국도선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도선지에는 우리 협회와 오랜 기간 다양하게 협력해온 (사)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를 초대해 제언을 담았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조선소가 있는 마산항도선구에서 신조선 도선에 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약 10여 년간 ‘도선사 강사’로 활약해온 부산항 강을규 도선사의 인터뷰 등 읽을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도선과 해운 역사의 축적과 중요한 자료와 사료로써 ‘도선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기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하반기도 전국 12개 지회의 도선사, 지회 임직원 및 선원의 협업이 조화를 이뤄 무사 안전도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항만 및 산업계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2022년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조 용 화 드림